

파일명 구분	회 의 록	제 차	
		작 성 자	김형범
		회의일자	2016.01.18
회의 장소 및 주제	■회의장소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관 5층 ■회의주제 1.전시내용 제작 관련 회의	참 석 자	
		서울시립대	교 수 김성홍
		한양대	교 수 안기현
		인천대	교 수 신은기
		단국대	교 수 김승범
		에이코랩	소 장 정이삭
		국민대	교 수 정진열
		서울시립대	정다은
		서울시립대	김형범
		-	최민정,김혜영
내 용	■전시내용 제작 관련 회의 1.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PSJ) 2.인쇄 견적은 좋은 종이와 사양을 고려해서 높게 잡음.(PSJ) 3.외주비가 많이 나가서 견적을 크게 줄이지는 못함.(PSJ) 4.2천4백원에서 2천2백만원까지 낮추는 것은 가능. 여기에 아트디렉터 비용은 제외.(PSJ) 5.비용에 도록과 리플렛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PSJ) 6.공간에서는 인하우스가 디자인 함.(PSJ) 7.인쇄하는 날 재료 바뀌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JJY) 8.2월말에 포스터가 완료되면 그것에 맞춰 시안을 잡을 예정.(PSJ) 9.데이터 받아서 하는 작업 기간은 한달 예상.(PSJ) 10.본인은 비용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작업이 어느까지인지가 문제.(JJY) 11.조율하면서 작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음.(JJY) 12.임무를 분리해서 하면 좋겠음.(JJY) 13.종이에 따라 견적차이가 큼.(JJY) 14.Realization 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음.(JJY) 15.컨텐츠 양을 정하는 것이 중요.(JJY) 16.테크닉과 관리 일은 누가 한명이 맡아야 함.(JJY) 17.벌써부터 제작비용이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JJY) 18.전시디자인은 공간과 별개임.(PSJ) 19.우려 및 제안(JJY)		
	①전시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②벽월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③타이틀		
	④전시 아이덴티티		
	-목차를 잘 드러내는 방법		
	-의도 등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현수막,포스터 등)		
	⑤네덜란드 디자이너		
	-"전시가 곧 책이다"		
	-책의 순서대로 벽에 구현(페이지 레이아웃)		
-공간을 그대로 찍어 책을 냄.			
⑥생각의 개념을 이미지와 결합.			
⑦우리의 이야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중요			
⑧갤러그 게임-제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방법임.			
⑨콜라주			
⑩사진에다가 파편화 된 공간 표현.			
⑪베니스 자체 모티브로 포스터 제작도 가능			

- ⑫이질적인 사물을 이용한 연출사진.
- ⑬일러스트레이션에 의한 도시풍경
- ⑭아키라 만화
- ⑮일정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벽 전체를 도배하는 것도 흥미 있음
- ⑯일러스트를 이용해서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주는 방식도 좋음.
- ⑰공간의 크기, 모듈
- ⑱선정한 건축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현.
- 20.정진열 교수님의 방향은 좋은데 작업투입시간 대비 사례금이 적을 수가 있음.(JDE)
- 21.전시콘텐츠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JJY)
- 22.전시내부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작업 양을 생각하고 있는지?
- 23.전시의 방향을 아카데미식인지, 풍자식인지 방향성 설정 중요.
- 24.전시디자인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 전시컨텐츠는 계속 생산 중임. 전시내부 디자인은 아직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정진열 교수님이 작업에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
- 25.작업을 하기 위해 전시의 메인 주제, 방향성, 뉴앙스, 건축작품의 선정기준 정도는 전달해 줘야 함.(JJY)
- 26.생각되는 정진열 교수님의 업무범위.(KSH)
- ①포스터
- ②인트로 룸에서 전시statement, 다이어그램 등을 우리가 제작하고 정진열 교수님이 컨설팅 해 주는 것
- ③김승범 교수님이 준비하는 데이터 자료들을 아트디렉팅 해주는 것
- ④전시장의 레이아웃 조언
- 27.포스터는 책임지고 하겠지만 컨설팅 부분은 힘듦.(JJY)
- 28.다음 워크샵 할 때 회의 참여 하겠음.(JJY)
- 29.작업을 아이덴티티 부분만 하는 것으로 생각.(JJY)
- 30.아이덴티티 작업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전시디자인은 3명 정도 팀을 구성해야 함. 시니어 디자이너 한명 비용은 하루 15만원정도 소요 예상.(JJY)
- 31.전시디자인(인포그래픽, Wall Text)+아이덴티티는 정진열 교수님이 맡는 것으로 함.(KSH)
- 32.전시에 픽토그램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KSH)
- 33.책은 공간에서 만드는 것으로 함.(KSH)
- 34.포스터, 인포그래픽, Wall Text는 정진열 교수님이 맡는 것으로 함.(KSH)
- 35.페포니스 교수님과 연락(KSH)
- 한국 도시가 가지는 스케일이 워낙 큼.
 - 도시를 블랙 & 화이트로 표현하면 잘 읽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AnLab의 다이어그램 흥미 있어 함.
 - 용어는 통일 시켰으면 함.
 - 정연두 사진작가 작품 흥미 있어 함.
- 36.모형 1/50은 크다고 생각. 이것은 스케일 1/100을 세 개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KSH)
- 37.김선우씨는 참여 못한다고 함.
- 38.1~3개 정도는 스케일 1/30 정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도 좋겠음(KSH)
- 39.모형 옆에 다이어그램을 어떤 형식을 보여줄지 고려
- 40.서울의 향측도
- 블랙 앤 화이트로 표현. 선정 작품들만 레드로 표현.
- 41.다음 회의 때 백승우 작가, 강성은 작가, 정연두 작가 참여여부 고려.

--	--